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축제를 즐기자

오늘 금남로 일대 전야제 코요테·김연자 등 '케이팝 향연'
하이다이빙 등 입장권 완판 예상... 흥행·성공 개최 기대



광주세계수영대회 D-1

관련기사 2·3·4·5·7·16면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흥행과 성공 개최만 남았다'

세계인의 수영 축제인 '2019 FINA(국제수영연맹)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11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12일 대회 개막만을 남겨두고 있다.

광주시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상 처음 열리는 대회인데다,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대회인 만큼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대회 성공 개최를 기대하고 있다.

입장권 판매도 목표 대비 95%(판매금액 기준)를 돌파하면서 대회 흥행에 청신호도 켜졌다.

◇전야제로 분위기 고조=10일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전야제가 11일 5·18 민주광장과 금남로 일대에서 열린다.

5·18 민주광장에서 오후 7시 10분부터 9시 40분까지는 케이팝(K-POP)의 향연이 펼쳐진다. 공연 1부는 코요테, 매드 크라운, 이하이 등이, 2부에서는 달수빈, 김연자, 워너 등 국내 정상급 가수들이 출연한다. 특히 1부와 2부 사이에 개최식의 하이라이트인 '물 합수식' 리허설이 광장 분수대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물 합수식'은 각국의 물이 '민주·평화·인권' 도시 광주에서 합쳐져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모색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물, 빛, 흥'이라는 주제로 오후 4시부터 9시 30분까지 펼쳐지는 금남로 행사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이어진다.

팝페라, 아프리카 타악, 7080 통기타, 버스킹 등을 비롯해 주먹밥 만들기과 수리 달이 부채 만들기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광주시와 조직위는 전야제 행사에 금남로 등 일부 도로를 통제할 예정이다.

◇입장권 완판 예상...대회 흥행 '청신호' 입장권도 완판이 예상된다. 조직위는 이날 현재 입장권 판매가 목표판매량

36만9000매(75억원) 중 31만5000매(71억원)에 달하며 목표금액의 95%를 넘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 발행된 입장권은 총 42만9000매(89억4000만원)로, 향후 대회기간 중 경기별 현장 판매까지 감안하면 입장권 100% 완판이 예상된다.

'하이다이빙'과 '오픈워터 수영'은 일찌감치 입장권 판매 목표량 100%를 넘어섰고, 개최식도 이미 매진된 상태이다. 조직위는 입장권을 미리 구매하지 못한 관람객들을 위해 대회가 치러지는 당일 경기장에서 현장 매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폭우·폭염, 대테러 대책도 추진=대회 기간 중 무더금 비가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대책도 마련됐다. 광주시는 특별교부세 65억원을 투입해 경기장 내에 물리포그(물안개 분무 시설), 콜링존(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 임시텐트형 그늘막을 설치했다. 남부대 수영장 등 야외경기장 관람석에는 햇빛 차양 시설을 마련했고, 경기장 주변 버스정류장 등 다중시설에도 콜루프(옥상에 태양광 반사 시설), 콜링포그, 그늘막 163곳 등을 확충하는 등 맞춤형 폭염 대책을 세웠다. 시는 또 풍수에 피해 예방을 위해 예비특보 단계부터 민·관·군 합동으로 현장대응반을 가동해 침수 우려 지역을 순찰하고 수방 자재를 사전에 배치한다.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에 CCTV 270곳을 관측할 수 있는 원격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대회기간 대테러 안전활동 지원도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육군 제31보병사단은 10일 사단 총장관에서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대테러 안전활동 지원사령부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임무 수행에 들어갔다. 지원사령부는 503여단·95연대·공병대대·화생방지원대·헌병특임대 등 31사단 전력, 특전사 11공수특전여단·국군화생방사령부 특임대대·506항공대·190공병대대 등 증원부대로 구성됐다. 대테러 안전활동 지원사령부는 이번 선수권·마스터즈 대회가 진행되는 총 31일간의 연인원 약 1만9700명을 투입하게 된다.

/특별취재단·최권일 기자 cki@



10일 광주 예술의 거리 은암미술관에서 개막한 '2019광주FINA수영대회 기념 청년작가 13인전' 참여작가와 김여송 광주일보 사장, 이용섭 광주시장 등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세계수영대회 성공개최 청년작가들 응원합니다

'13인전' 은암미술관서 개막

'세계 수영대회 성공을 기원하고 청년작가들을 응원합니다.'

2019광주FINA수영대회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광주일보·은암미술관이 주관하는 '2019광주FINA수영대회 기념 청년작가 13인전'이 10일 은암미술관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관련 화보 16면〉

이날 개막식에는 김여송 광주일보사장을 비롯해 이용섭 광주시장, 김동찬 광주시의회의장, 조영택 수영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김선정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등 각계각층 인사와 전시 초대 작가 등 200여명이 참여 성황을 이뤘다.

'DIVE INTO YOU'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전 세계인의 축제인 수영대회의 성공을 기원하고, 예향 광주의 현대 미술과 문화를 알리기 위해 준비한 기획이다. 전시에는 노여운, 박성원, 박인선, 송지운, 선영현, 설박, 신호운, 양나희, 양세미, 임현재, 윤준영, 이인성, 최요안 등 13명의 작가가 참여해 한국화, 서양화, 설치, 사진 등 다양한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이용섭 시장은 이날 축사에서 "역동적이고 개성 넘치는 작품이 많아 이번 전시회가 지역작가들이 도약을 하는 작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역대 가장 많은 149개 국가가 참여하는 수영선수권대회 기간 동안 선수들과 관광객들이 전시장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여송 광주일보 사장은 "세계수영대회는 예향 광주의 젊은 작가들과 세계 각국의 젊은 선수들이 한마당이 되는 뜻깊은 자리"라며 "이번 대회를 치르는 광주는 제2의 탄생을 통해 크게 발전할 것이고 150만 광주 시민, 대한민국 국민, 수영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와 작가들이 한 여름밤 멋진 추억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오는 28일까지 19일까지 열린다. 문의 062-226-6677.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일본 수출 규제 비상 상황 정부·기업 상시 소통 협력"

문대통령, 4대그룹 포함 효성 등 30개사 총수와 대책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라며, 더 이상 막다른 길로 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6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삼성·현대차·SK·LG·롯데·효성 등 총자산 10조원 이상인 국내 대기업 30개사 총수 및 CEO들을 불러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한 자리에서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의 철폐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제재와 연결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 우호와 안보 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국의 경제에도 이롭지 않은 것은 물론 당연히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국제적인 공조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조치를 "정치적 목적"이라고 규

정한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를 한국의 대북제재와 연결한 데 대해 사실상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인 만큼 무엇보다 정부·기업이 상시로 소통·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체제를 구축하고 장·차관급 범정부지원체제를 운영해 단기적·근본적 대책을 함께 세우고 협력해나가자는 것"이라고 이날 회동의 성격에 대해 설명했다.

단기적 대책으로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입처의 다변화와 국내 생산의 확대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필요할 경우 절차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이 어떻게 끝나든 이번 일을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기술·핵심 부품·소재·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2019 WORLD YOUTH FESTIVAL
청년의 바다
우리가 원하는 바! 다!
2019 WORLD YOUTH FESTIVAL
2019 세계청년축제

7.19 FRI ~ 7.21 SUN pm 4:00 ~ 10:00 5·18 민주광장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원
DOCKING OCEAN | DEODORANT OCEAN | DYNAMIC OCEAN | TUNNEL OCEAN | PARTY OCEAN | DEEP OCEAN
www.worldyouthfestival.co.kr
www.facebook.com/yyouthfestival 2019_world_youth_festival blog.naver.com/worldyf

사랑과 감사의 65년
민중과 소망으로 100년
[1954 ~ 2019]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